

보도시점 2025. 9. 10.(수) 13:30 (2025. 9. 11.(목) 조간)

모든 청년의 일자리 첫걸음 정부가 함께 합니다

- 청년의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0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고용률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고, 청년 인구는 감소하지만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증가하여 40만 명대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청년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인식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마련했다.

그간 노동부는 당사자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청년 타운홀 미팅(「청년, 일문일답」, 8.28.) 등의 간담회와 심층 면접(FGI)을 진행하여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했다.

청년들은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하고 구직자에 대해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쉬었음 경험에 있는 청년들은 **실패를 극복하고 점진적으로 일터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함께 임금 체불 등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일터를 만났을 때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다.

첫 직장에 도전하거나 적응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불필요한 좌절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실패해도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쉬었음 청년을 본격적으로 찾아가 지원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담았다.

[쉬었음 청년: 미취업 청년 DB 구축, 「발굴-다가가기-회복」 체계 마련]

일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춘 청년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한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청년의 동의하에 연계하여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을 예정이다. 이러한 청년에 대해서는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 고립·은둔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관계 부처의 지원사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실패가 허용되는 포용적인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상담을 병행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 청년: 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AI를 기회로 도약하도록 지원]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한다. 지난 5년간 10만명 이상의 IT 인재를 양성한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 5만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까지 연계하여 현장 직무 경험까지도 축적할 수 있도록 2천명 규모의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첫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구직기간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2026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 기본 노동 여건 보장,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 지원]

청년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채용플랫폼을 통해 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일터에서 체불·괴롭힘 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한편, 중소기업이 청년이 원하는 근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해 반복적·고강도 작업을 줄이고 산재 위험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하여 지원한다.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80만원)한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29세인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별첨: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

고용노동부 <총괄>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구현경 (044-202-7440)
		담당자	사무관	강석원 (044-202-7423)
고용노동부 <공동>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책임자	과 장	김초경 (044-202-7369)
		담당자	사무관	류한석 (044-202-7316)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책임자	과 장	허윤선 (044-202-7190)
		담당자	사무관	최원석 (044-202-7193)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세희 (044-202-7470)
		담당자	서기관	이상전 (044-202-7412)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부경 (044-202-7425)
		담당자	사무관	윤문규 (044-202-7420)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책임자	과 장	김지원 (044-202-7432)
		담당자	사무관	임동훈 (044-202-7466)
		담당자	사무관	김성규 (044-202-7441)
		담당자	사무관	김형선 (044-202-7439)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44-202-7451)
		담당자	사무관	이상보 (044-202-7435)
		담당자	사무관	김윤지 (044-202-7458)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박상원 (044-202-7307)
		담당자	사무관	김용욱 (044-202-7311)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부용 (044-202-7740)
		담당자	사무관	김서원 (044-202-7741)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책임자	과 장	허기훈 (044-202-7761)
		담당자	사무관	배 인 (044-202-7762)
	노동개혁정책관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	책임자	代과 장	박보현 (044-202-7695)
		담당자	사무관	임재진 (044-202-7748)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책임자	과 장	박윤경 (044-202-8850)
		담당자	사무관	김재규 (044-202-8851)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희준 (044-203-6397)
		담당자	사무관	박만수 (044-203-6394)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제조혁신과	책임자	과 장	양승욱 (044-204-7260)
		담당자	사무관	김종길 (044-204-726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서기관	양재훈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02-2100-1686)

목 표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 지원

정책방향

- ❑ 미취업 청년 DB 구축, 「발굴-다가가기-회복」 체계 마련
- ❑ 현장에서 배우고, AI를 기회로 도약하도록 지원
- ❑ 기본 근로여건 보장,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 지원

대 책

01 잠시 멈추고 쉬는 청년 → 회복할 기회 보장

❑ 상황

취약청년 정보 부족
발굴·접촉 수단 부재
심리적 어려움

❑ 추진 과제

- [발굴] 미취업 청년 DB 구축
- [다가가기] 온·오프라인 1:1 취업지원 연계
- [회복] 심리상담·포용적 일·경험 제공

02 일하고 싶은 청년 → 일할 기회 보장

❑ 상황

경력형성 부담
AI 등 미래분야훈련부족
구직기간 장기화

❑ 추진 과제

- [기회]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 [성장] AI 등 “훈련·일경험·취업” 패키지 지원
- [취업] 똑똑한 취업전략·안정적 구직활동 지원

03 일하는 청년 → 기본을 지키는 일터 보장

❑ 상황

노동법 준수 기업정보 부족
청년 상식·현실 미스매치

❑ 추진 과제

- [기초]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일터 정착
- [발전] 청년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일터 확산

-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 지금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쉬었음 현황과 일자리 대책 방향

- 청년에게 첫 일자리는
성인으로 사회에 나서는 첫걸음이고,
미래를 향한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 그러나 취업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이
40만명선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 ‘단군 이래 최고 스펙’ 을 갖춘 청년들이
왜 쉬었음에 빠지는가?
그것은 팬참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 저성장, 경력직 선호, AI 대체까지 겹쳐
신입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력이 없어 취업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인 것입니다.
- 설령 어렵게 취업해도,
노동환경은 열악하고, 존중받지 못하며, 성장 기회가 없어
이직을 거듭하다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진짜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 정책은 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동시에, 청년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에 대하여,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 잠시 멈춘 청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당당히 일할 기회,
일하는 청년에게는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일터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잠시 멈춘 청년

- 먼저, 잠시 멈춘 청년들은
정부가 먼저 다가가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행정 정보를
청년의 정보제공동의 하에 연계하여
장기 미취업 청년에 대한 DB를 구축하겠습니다.

- 발굴된 청년은 특성에 맞게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에서 온-오프라인상에서 접촉하여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다시 취업에 도전할 의욕이 생긴 청년들에게는 직장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재도전 과정에서 꺾이지 않도록 고용센터, 민간 플랫폼 등을 통한 심리상담도 확대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

- 둘째, 구직 청년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AI를 기회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대·중견기업, 스타트업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청년들이 목말라하는 인턴,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일경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자발적 참여 기업에게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은 실제 경력으로 취업에 활용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전 산업분야에서 AI활용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도록 K 디지털 트레이닝을 개편하겠습니다. 청년 5만명에게 현장중심의 AI 융복합 등 훈련을 제공하고 관련 분야 일경험과 취업까지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 길어진 구직기간에 생활비 걱정을 덜도록
구직촉진수당을 현 50만원에서 26년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추후 단계적 인상도 추진합니다.
- 아울러, 업종·규모별 생애노동소득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단편적인 정보나 편견이 아니라
정확한 임금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돕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 셋째, 일하는 청년이 기본적인 노동여건을 보장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청년 다수가 일하는 중소기업이
기본을 지키는 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자가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회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제공합니다.
- 임금체불 근절, 산업재해 예방으로
정당한 보상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겠습니다.
플랫폼·프리랜서 등 권리 밖 청년 노동자의 권익도
기본법 제정과 재정지원을 통해 보호하겠습니다.

- 나아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중소기업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 청년에게 상식인 청결한 화장실, 냉난방 같은 기본 환경이
모든 일터의 상식으로 자리잡도록 확산하겠습니다.
 - 주 4.5일제 도입 지원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을 보장하며,
중소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AI 팩토리 확산 등을 통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으로 바뀌어나가겠습니다.
-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로 매칭하여 근속을 돕겠습니다.
 - 구인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수도권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720만원까지 우대지원하겠습니다.
 - 본인의 직무분야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가까운 선배 경력자 멘토링과 커리어 상담을 확대하고,
특히 고졸 인재에게는 직무별 성장경로를 제시하겠습니다.

맺음말

- 이번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직·재직 중인 청년뿐만 아니라, 쉬었던 이력이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 실제 생활과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 쉬었음 청년은 단순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채용 전형과 길어진 취업 여정에서
불안함이 컸습니다.
회사에서 반말과 단순 업무가 아니라
존중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만 주었더라도
첫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 기성세대가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 우리 청년들은 아직 정해진 노선이 없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 본인의 길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예비 노동자들이 막막함 속에 포기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소통하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든든한 ‘일자리 멘토’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